

지식인의 위상과 자세

‘물질만능 바로



崔亨燮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현대사회는 기술문명과 지식인에 의해 주도되며, 급격한 기술변화, 경제의 세계화, 지식자원(知識資源)의 활용 등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현대 산업사회는 물질화, 기계화되고 있으며, 행위(行爲)의 규범(規範)은 정립되지 않은 채, 지나친 경쟁으로 말미암아 인간성은 극도로 황폐화하고 있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소위 수단-목적 도치(倒置)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윤리와 규범의 확립 절실

실로 오늘날 우리의 산업사회는 성장과 발전은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윤리·도덕은 정립되지 못한 실정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지켜야 할 도리와 의무는 빼놓고 권리·권한만 주장하거나, 또 상대방의 역할과 인격은 무시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리사욕(私利私慾)만을 추구하고 있다. 자신에 부여된 책임은 외면한 채 적당주의, 기회주의를 추구하고 자기에게 부과된 의무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轉嫁)시키며, 자기의 권리와 권한은 조그마한 것이라도 놓치지 않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다.

이러한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근본(根本)의 상실(喪失)’, ‘규범(規範)의 망각(忘却)’을 어떻게 극복해갈 것인가? 여기에 현대 산업사회에서의 지식인들의 올바른 역할이 요청되고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지식인이야말로 현대 기술문명에서 그 바탕이 되는 정신문화 창조의 핵심으로서 윤리와 규범을 확립하여 자유롭고 민주적인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하며, 물질만능의 현대 산업사회에서 이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질서와 혼란의 나라에 빠져, 거의 빈사상태에 있던 싱가포르를 20여년만에 국민소득 3만달러 수준의 세계 제4위의 일류국가로 키워낸 리관유(李光耀) 전 수상도 그의 저서 「일류국가의 길」에서 ‘자유는 질서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최근 한국사회 전반을 뒤흔들고 있는 불안과 혼란, 갈등과 증오를 해소하는 길을 논하면서 지식인들의 참여와 역할이 더 한층 중요시되고 있다. 지식인에게는 권력의 압박이나 물질적 유혹에 좌우되지 않고 이성으로 다져진 객관적 소신에 근거해 의견을 제시해야 할 임무가 주어진다. 그것이 바로 지식인이 취해야 할 바른 자세라고

잡는 길잡이 돼야'

하겠다. 그러나 혹자는 '절대적인 하나의 진리, 하나의 정의, 하나의 신념을 인정하기보다 다양성과 다원성을 용납하며 상대주의를 존중한다.'는 포스트모던시대의 사고방식을 제기하면서 이러한 풍토에 적응해 훌륭한 토론 문화를 이뤄내어 대화와 타협의 방도를 슬기롭게 찾아내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화와 타협이란 자신의 확고한 의지와 정체성을 무시해도 좋다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자신의 소신을 견지하면서 상대방과의 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식인 특히 학문하는 사람들의 토론에서는 자기주장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정(是正)이나 보완(補完)을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서로 주고받는 '타협'은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학문 존중하는 사회풍토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한가지 덧붙여 되풀이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학문하는 사람들은 독선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견해가 잘 되어 있든 잘못되어 있든 이를 귀담아 들어주는 아량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코펜하겐대학 이론물리학 교수인 닐스 보어(Niels Bhor)는 1921년 대학 내에 부설연구

소를 개설하여 하이젠베르크(Werner Karl Heizenberg)를 비롯한 수많은 과학 천재들을 문하에 거느리고 새로운 학문창조에 크나큰 발자취를 남겼다. 보어는 이 연구소를 과학자들이 마음놓고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마당으로 만드는 데 전력을 다 했다. 여기서 보어는 누가 어떠한 말을 하되 이를 끝까지 다 들어주었다고 한다. 이러한 학문하는 데 있어서의 '관용(寬容)의 정신'이야말로 코펜하겐 이론물리학연구소를 세계 정상에 올려놓은 원동력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보어는 덴마크에서는 거의 국민적인 영웅으로 추앙되고 있으며, 전 국민이 진심으로 그를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덴마크를 작지만 강한 나라로 만든 사연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사회풍토가 언제나 우리나라에서도 이루어 질 수 있을까 안타까운 노릇이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 있어서나 그 사회가 건전한 발전을 이룩하려면 학문하는 분위기가 올바르게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학문을 존중하는 사회풍토와 더불어 학문하는 사람들의 품위와 자세는 그 사회 혹은 그 나라의 장래를 예견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⑤7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지식인들의 올바른 역할이
요청되고 있다.
지식인들이야말로
현대기술문명에서
그 바탕이 되는
정신문화 창조의 핵심으로서
윤리와 규범을 확립하여
자유롭고 민주적인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하며
물질만능의 현대산업사회에서
이를 바른길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